

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 포기 결정



대우건설 4분기 실적에 모로코 3000억원 손실 국외 다른 현장서도 막대한 손실 가능성 우려

중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개월여 간의 인수 기간 동안 정치권 연루설, 특혜설과 노동조합 등 일부 대우건설 내 매각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우건설이라는 상징적 국가기간 산업체를 정상화 시키고자 진정성을 갖고 인수 절차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호반건설을 믿고 인수 작업을 도와준 금융기관과 자문사 관계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호반건설은 대우건설이 전날 공시한 4분기 실적에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발생한 3000억원의 잠재 손실이 반영된 것을 파악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3분까지 실적을 놓고 단독 응찰했으나 대규모 부실이 뒤늦게 파악된 것이다.

공시 전까지는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매각 주관사도 4분기 국외 손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은 대우건설의 여러 해외 현장 중 대규모 손실이 모로코 한 곳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금 보유능력이 탄탄한 호반건설도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과 대우건설이 아직까지 양해각서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 인수를 포기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호반건설은 이날 최종 인수 중단 입장을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국외 손실이라는 돌발 변수가 나타나 인수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 시공능력평가(시평)가 13위인 호반건설은 지난해 31일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평 3위인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채권단 보유 대우건설 지분 50.78%를 약 1조 6000억원에 인수할 예정이었다.

뉴시스



광주신세계, 사랑·감사 담은 명절 선물 제한

(취광주신세계(총괄인원 최민도)는 다양한 명절 GIFT를 제안하며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민족 대 명절인 설날이 1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선물을 준비하려는 인파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선물세트 외에 특별한 선물을 찾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날은 발렌타인 데이와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선물을 고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선물세트 판매가 시작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잡화부문의 매출이 전년 대비 5.1%, 남성부문의 매출이 9.7% 신장했다. 추가적인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사랑과 감사를 담은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는 '1년에 단 한번, 비즈니스 균일가전'이 열린다. 각 브랜드 본 매장에서보다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할 격식 있는 선물로 '버버리'의 '두들 체크 파우치' / '지퍼 라운드 지갑' (35만원/70만원), '페라카모'의 'CAPUA 플라워 힐' (79만원)과 'TODAY 토트백' (79만원)을 준비했다.

발렌타인 데이를 앞두고 남성들

을 위한 상품도 준비했다. 화장품 매장에서 깨끗한 피부를 위한 웹 시리즈의 프로 IS 울인원 퀘이스 트리트먼트 50ML를 1+1(3만 8천 원)에 한정 판매한다.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심플하고 세련된 '골드마인'의 '14K 해수 진주(6mm) 목걸이' (11만 9천원)나 '날씨가 풀리면 착용하기 좋은 '아기타'의 '파시미나 스카프' (2만 9천 원)는 받는 사람의 분위기를 비춰 줄 센스 있는 선물로 제격이다.

명절 이후 새 학기가 곧바로 다가옴에 따라, 학생을 위한 선물도 명절 선물로 제안하고 있다. 나이키의 '에어맥스 2017' (22만 9천원), '네상트'의 '에어큐브 체인지 가방' (17만 9천원), '타미할퍼커 칠드런'의 '신학기 책가방 세트' (12만 8천 100원)는 받는 학생들의 얼굴에 활짝웃음이 피게 만들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아이들을 위한 새해맞이 꼬가웃도 다수 선보인다. 추운 날씨에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줄 '오가너 맘'의 '내외세트' (2만 7천원), '닥스 키즈'의 '누빔 점퍼' (27만 9천원)가 준비되어 있고, '쁘띠비트'의 '베이비 여아 원피스' (11만원), '여아 레드 가디건' (9만 5천원)은 아이들의 귀여움을 한층 더해주는 상품이다.

"유아 일회용 기저귀, 성능차 있다"

한국소비자원, 선호 브랜드 8개 대상 시험평가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의 핵심 성능인 흡수성능과 촉감, 가격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의 팬티형 기저귀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흡수성능과 안전성, 촉감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소변이 피부로 뒤물어나는 정도를 평가한 역류량은 2회 소변량(160ml)에서 '보솜이 프리미엄 천연코튼 팬티', '팬퍼스 베이비드라이 팬티'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소변의 흡수 정도를 평가한 결과, '팬퍼스 베이비드라이 팬티' 제품이 기저귀에 고인 소변을 가장 신속하게 흡수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또 흐르는 소변을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성능을 평가한 결과, '나미포코 360핏 팬티', '보솜이 프리미엄 천연코튼 팬티'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성능이 좋았다.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소변의 양은 전 제품이 3회(240ml) 이상의 소변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변이 기저귀를 통과해 새



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의 누출량이 매우 적어 정상적인 착용 시 옷이 소변에 젖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피부에 가장 많이 닿는 기저귀 안쪽 표면의 촉감을 평가한 결과, '나미잡 슈퍼드라이 팬티' 제품이 다른 상태와 젖은 상태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 어린이 제품 공품안전기준 및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0(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에 따른 pH, 포알데하이드 등 시험 결과에선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있는 일본산 '군 오리지널 팬티' 제품에 대한 방사능 물질(요오드·세슘) 확인결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뉴시스



삼성광주공장, 신개념 모듈형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 출시

무풍 기술 적용...분리·결합 가능 1대로 여러 대 효과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모듈형 큐브 디자인의 신개념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가 8일 출시됐다.

'삼성 큐브'는 강력한 필터 장착으로 청정 능력이 대폭 강화된 데 이어 분리·결합이 가능하고 삼성만의 독보적인 무풍기술을 적용해 찬바람과 소음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모듈형 디자인을 적용, 사용 공간과 용도에 따라 분리·결합이 가능해 1대로 여러 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낮에는 넓은 거실에서 2개의 제품을 결합해 대용량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분리해 안방과 자녀방 등으로 각각 나눠서 개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다. 또 주거 공간이 확장되거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 경우 같은 모듈을 추가로 구입해 사용하면 활용도와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삼성 큐브는 필터 속 세균까지 살균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집진 필터'를 장착해 0.3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99.99%까지 제거할 수 있는 '초순도 청정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는 10만개의 먼지가 필터를 통과할 때 1개의 먼지만 빠져나갈 정도의 높은 청정 수준이다.

삼성 큐브에는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똑똑한 사물인터넷(IoT) 기능'도 탑재돼 있다. 삼성 커넥트 스마트홈 앱으로 외출 중에도 간편하게 실내의 공기질 점검, 제품 원격 제어, 필터 교체 시점 알림과 구매 페이지 안내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삼성 큐브'는 청정 면적(47~94㎡), 결합 유무, 필터 구성에 따라 총 7개 모델로 출시된다.

출going은 80만원~200만원이며, 공식 출시에 앞서 8일부터 삼성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식적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삼성전자 공기청정기는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에서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할 만큼 혁신적인 성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기존 공기청정기에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한 '삼성 큐브'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 광주점 속옷 균일가 행사...최대 80%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18일까지 1년에 단 한번 진행되는 '비즈니스 균일가 대전'을 9층 행사장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행사 규모와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난해보다 15% 가량 늘린 3억 원 상당의 판재리를 선보이며 가격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인기 상품을 연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브래지어 1만5000원, 여성팬티 6000원, 남성팬티 1만1000원, 슬립 1만 7000원, 내의 상하 각 1만4000원 등 균일가로 판매한다.

상대적으로 판재리에 관심이 적은 20~30대 고객 흡수와 함께 요가, 휘트니스 등이 대중화되면서 이너웨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내의, 스포츠 속옷, 브라넷, 파자마 등 상품을 더욱 다양하게 선보인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